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15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월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7 월]



복음화 지향 : 노인들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와 그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 보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정신을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려 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돕도록 합시다.

제1독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30,10-14

<그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화답송 시편 69(68),14와 17.30-31.33-34.36 그리고 37(◎ 33 참조)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15-20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6,63.68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5-37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영성체송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영성체 후 묵상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곤경에 놓인 이웃을 보고,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린 사제나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가엾은 마음이 들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까?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제 16 차 세계주교시노드 소개 7 회 - 예루살렘 사도 회의 ♣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주제인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역사에서 그리 오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종의 신조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는 교회의 공식회의인 '시노드'에서 파생된 것으로, 시노드에서 이뤄지는 과정과 원리, 구조와 성격을 통칭합니다. 그렇다면 시노달리타스가 뜻하는 개념 역시 현대에 와서 새롭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 자체는 현대에 등장했지만, 그 개념은 오래되었습니다. 무려 성경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도행전 15 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 회의'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시노달리타스의 개념과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회의가 열린 이유는 안티오키아 공동체에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몇몇 사람이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유다인의 전통인 할례를 요구했던 것이지요. 이 문제는 공동체 안에 발생한 현안, 곧 그들이 마주한 실제 삶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문의하기로 하고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파견합니다. 두 사도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안티오키아에서 발생한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하고 솔직한 논쟁'(사도 15,7 참조)이 이어지지요. 아마도 성령을 체험한 신자들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증언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인 이들 가운데서 권위있게 증언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비추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몇 가지 행동 규칙과 함께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끝으로, 바르사빠스와 실라스를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로 파견하며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 편지를 전달받은 안티오키아 공동체 신자들이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참여한 이들의 역할은 서로 달랐지만, 모든 이가 다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15,22)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안티오키아 전달된 편지에는 짧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 결정하였습니다"(15,28). 처음에는 의견 차이에 따른 활발한 토론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느님 활동에 대한 증언과 서로의 판단을 교환하며 성령의 뜻에 함께 귀 기울이는 가운데 '만장일치적 합의'(15,25 참조)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공동 식별을 통해 결실을 거두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사도 회의는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지니고 성령 안에서 서로 결합함으로써 나아갈 길을 질서 정연하게 정립하는 하느님 백성의 여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 연중 제 15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 구절



'착한 사마리아인'
빈센트 반 고흐 작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10,37).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제 2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교황 담화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시편 92[91],15)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담화문에서 많은 이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피하면 좋을 일종의 질병으로 치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은 관심의 대상도 아니며 요양원이나 시설에 따로 떨어뜨려 두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버리는 문화”의 사고방식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 교황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 결국 노년을 맞이하지만, 아무도 대비하도록 준비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진사회에서도 노년의 단계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지만 노년을 이해하거나 인정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악에 굴복하지 않게 해 주신다고 강조하시면서, 나이가 드는 것은 장수를 누리는 선물이며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에도 우리는 자신을 돌보면서 활동적으로 생활하며, 영성적으로도 하느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사를 받고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내면의 삶을 가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은 항해를 포기하고 돛을 접어야 하는 때가 아니라 여전히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며 미래를 바라보라고 부릅니다. “인간미가 흐르게 하는 관심과 생각과 사랑에 관한 우리 노인들의 특별한 감수성이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노인들의 젊은 세대들을 향한 사랑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온유함의 혁명”**, 곧 영적이고 비폭력적인 혁명을 위한 우리 노인들 나름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부모와 노인 여러분, 이러한 혁명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고 교황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황님께서서는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고독의 그늘과 전쟁의 마수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온유한 사랑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우리 모두를 온유함의 혁명을 이루는 장인이 되게 해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담화문 전문 링크 : <https://cbck.or.kr/Notice/20220432?gb=K1200>

'제 2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전대사 안내

공동체 홈페이지 참고[성당소식 → 주보 → 2022년 7월 3일 → 공지사항]

신앙 수기 공모

어르신들께서 신앙 안에서 경험한 삶의 지혜와 신앙고백을 편지글 형식으로 나누는 신앙 수기를 공모합니다.

7월 10일(주일)부터 성전 입구에 마련된 양식지를 가져가셔서 수기를 작성하신 후 7월 24일(주일)까지 교무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대부모, 은인들에게 엽서 보내기

우리 공동체에서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님과 대부모, 은인들에게 엽서 보내기를 진행합니다.

7월 10일(주일)부터 성전 입구에 마련된 엽서를 가져가셔서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제출하시면, 공동체 차원에서 일괄 발송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분들은 미리 받으실 분의 주소와 내용을 준비하여 작성하신 후 교무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의 정성스런 참여를 바랍니다.

[※ 제출마감일 : 7월 31일 주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매일말씀

CPBC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신자분들께서 매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성명과 세례명을 입력하시고 말씀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말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물, 복음의 씨앗인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희망이며 신앙 생활의 버팀목입니다. [매일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일말씀 받기 링크: <https://www.cpbc.co.kr/legacy/dailyverse4me/>



교무금 납부 확인서 배포(7월 17일(주일)부터) 및 공동체 재정보고(7월 17일(주일)) (문의 : 이지영 아네스)

| 연중 제 15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④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니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③

스마트폰 스트리밍 대신 다운로드
→ 한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은 자동차 1km 탄 것과 같아요.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cpbcTV 가톨릭평화방송

펜데믹의 최전선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2년, 질병에 맞서

인내해 온 시간]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감염내과 최정현 교수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꿀팁가이드]

판관기 후반부 | 룻기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삼손의 힘은 정말 머리카락에서

나왔을까?

천주교대구대교구

SYNODALITAS, 무엇인가요?

-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 -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모든 이가 초대된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6월 26일	성인 28 아이 19	7월 3일	성인 39 아이 14
--------	-------------	-------	-------------

□ 우리들의 정성 (7월 2일(토)~8일(금))

권요순	김요한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주정자	진윤기	교무금 : \$520 (10 가정) / 봉헌금 : \$290 / 감사헌금 : \$1,000 (이지영)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7월 10일, 연중 제 15 주일) 장호훈 마르코, 서은주 데레사

(7월 17일, 연중 제 16 주일, 농민주일) 주정자 루치아, 이상명 다니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10일) 루카반 → (17일) 요한반 → (24일) 마르코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 (10일) 마르코반 → (24일) 마태오반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수연(루카반), 김수진(마르코반), 박순덕, 정정희 베로니카(요한반, 12일), 하현수 헨리코(마태오반, 13일)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제 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

<https://missa.cbck.or.kr/Prayer/864>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https://missa.cbck.or.kr/Prayer/53>

